
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)

성명  수험 번호

1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 [1점]



태련: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이 참 여유가 있어 보여.  
 민성: 맞아, 주위에 있는 문방사우, 책, 두루마리, 호리병 등을 보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.  
 태련: 왼편에는 “종이창에 흙벽, 평생 벼슬하지 않고 이 안에서 시가나 읊조리련다.”라는 글도 있어.  
 민성: 아,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‘(㉠)衣風流圖’라고 하는구나.

- ① 布    ② 羽    ③ 雨    ④ 綠    ⑤ 錦

2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? [1점]



- ① 底    ② 厚    ③ 原    ④ 庭    ⑤ 侯

3. 사전에서 한자를 찾았을 때, ㉠과 ㉡의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? [1점]

(㉠) <b>【吉】</b> 총 6획 길 자해 길하다	飛 (㉡) <b>【翻】</b> 총 21획 번 자해 뒤집다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|     |    |     |    |
|-----|----|-----|----|
| ㉠   | ㉡  | ㉠   | ㉡  |
| ① 士 | 10 | ② 士 | 11 |
| ③ 士 | 12 | ④ 口 | 11 |
| ⑤ 口 | 12 |     |    |

4. 두 자를 합하여 하나의 한자로 만들 때, ㉠과 ㉡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? [1점]

○ 水 + 肖 = ( ㉠ )      ○ 女 + 少 = ( ㉡ )

- |     |   |     |   |
|-----|---|-----|---|
| ㉠   | ㉡ | ㉠   | ㉡ |
| ① 초 | 소 | ② 소 | 묘 |
| ③ 초 | 묘 | ④ 수 | 너 |
| ⑤ 소 | 소 |     |   |

5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? [1점]



- ① 抗    ② 恒    ③ 康    ④ 降    ⑤ 講

6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알맞은 한자는? [1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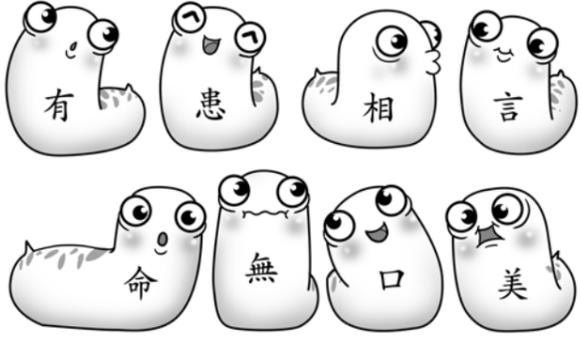
			↓
			□
			□
→	□	□	□
			㉠

【가로 열쇠】  
 꺾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.  
 【세로 열쇠】  
 걸과 속이 다름.

- ① 同    ② 從    ③ 異    ④ 動    ⑤ 應



14. 그림의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와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끝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거야.
② 미안해,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.
③ 미리 준비해 두면 걱정할 것이 없단다.
④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속은 없는 것 같아.
⑤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친구들도 연주를 좋아하네.

15.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?

言能忍, 無過言, 行能忍, 無過行. 言無過行無過, 而不爲君子者, 未之有也.

- 『경암집』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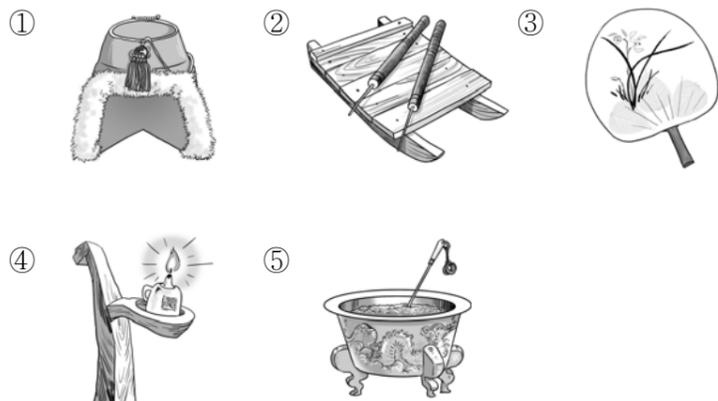
- ① 군자의 말과 행동은 과거나 현재나 한결같아.
②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사람은 군자라고 할 수 없어.
③ 과거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해.
④ 올바른 인격을 갖추려면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지.
⑤ 군자는 하고 싶은 말은 참지만 행동은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야.

16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물건으로 알맞은 것은?

炎而用, 何喜, 涼而舍, 何慍. 順所遇, 安厥分.

\* 慍(은): 화내다

- 『덕양유고』 -



17. 글의 교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? [1점]



- ① 자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호철
② 항상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혜
③ 급히 서두르다 실수를 많이 하는 상일
④ 면접시험에 지각하여 기회를 놓친 영빈
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피하려는 수경

18.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?

不患人之不己知, 患不知人也.

- 『논어』 -

- ① 無道人之短.
② 君子求諸己.
③ 無友不如己者.
④ 己所不欲, 勿施於人.
⑤ 人無遠慮, 必有近憂.

[19~21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牛山之木嘗美矣, 以其郊於大國也, 斧斤伐之, 可以爲美乎? 是其日夜之所息, 雨露之所潤, 非無萌蘖之生焉, 牛羊又從而牧之, 是以若彼濯濯也. 人見其濯濯也, 以爲未嘗有材焉, 此豈山之性也哉?

\* 斧(부): 도끼 \* 萌蘖(맹얼): 싹

- 『맹자』 -

19. 의미상 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?

- ① 乃 ② 已 ③ 于 ④ 也 ⑤ 而

20. ㉑과 ㉒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?

- ① 자라다 본성 ② 쉬다 생명
③ 자라다 생명 ④ 쉬다 본성
⑤ 그치다 생명

21.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예전에 우산의 나무는 아름다웠다.
② 우산의 나무를 사람들이 베어 갔다.
③ 우산은 지금 초목이 없는 민둥산이 되었다.
④ 사람들은 우산에 재목이 많아질 것이라고 여겼다.
⑤ 우산에 자라난 초목의 싹이 소와 양 때문에 없어졌다.

[22~2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㉔知恩, 性至孝, 少喪父, 獨養其母. <중략> 不勝困苦, 就富家, 請賣身爲婢, 得米十餘石. 窮日行役於其家, 暮則作食歸養之. 如是三四日, 其母謂女子曰: “向食麤而甘, 今則食(㉔)好, 味不如昔, 而㉕肝心若以刀刃刺之者, 是何意耶?”

\* 麤(추): 거칠다 - 『삼국사기』 -

22. ㉔의 행동과 일치하는 것은?

- ① 가난의 고통을 끝내 이겨냈다.
- ② 밤새도록 부잣집에서 일하였다.
- ③ 3, 4일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.
- ④ 저녁마다 음식을 집으로 보냈다.
- ⑤ 스스로 부잣집의 노비가 되었다.

23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㉔에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何      ② 胡      ③ 孰      ④ 誰      ⑤ 雖

24. ㉕에 드러난 심정과 관계있는 것은?

- ① 喜      ② 恕      ③ 痛      ④ 歡      ⑤ 樂

[25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趙光一, 以針術名, 自號針隱. 足未嘗跡㉖朱門, 門亦無顯者跡. <중략> 或問: “以子之能, 何不交㉗貴顯取聲名, 乃從閭巷㉘小民遊乎?” 光一笑曰: “(      ㉙      ) ㉚所哀者, 獨閭巷㉛窮民耳. 且吾操針而遊於人, 數十年矣. 日療數人, 月治㉜十數人, 計所全活, 不下數百千人. 復數十年, 可活㉝萬人, 吾事畢矣.”

\* 趙光一(조광일): 인명      \* 閭(려): 마을  
\* 療(료): 치료하다      - 『일사유사』 -

25. ㉙~㉝ 중, ㉖와 관계있는 것은?

- ① ㉙      ② ㉘      ③ ㉚      ④ ㉜      ⑤ ㉝

26.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㉙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소.
- ②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 어찌겠소?
- ③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지.
- ④ 존귀한 사람들의 집에는 이미 수없이 다녔소.
- ⑤ 저 존귀한 사람들에게야 어찌 의원이 적겠소?

27. ㉚와 짜임이 같은 것은?

- ① 夜深      ② 明暗      ③ 靑雲      ④ 思考      ⑤ 讀書

[28~30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(가) 請看㉑千石鐘, 非大扣無聲.  
㉒萬古天王峯, 天鳴猶㉓不鳴.

\* 扣(구): 두드리다  
- 조식, 『天王峯』 -

(나) 遠上寒山石徑斜, 白雲生處有人家.  
㉔停車坐愛楓林晚, ㉕霜葉紅於二月花.

- 두목, 『山行』 -

28. 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(가)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.  
ㄴ. (가)의 제1구와 제2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룬다.  
ㄷ. (나)의 제3구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.  
ㄹ. (나)의 제4구에는 색채감이 두드러진다.

- ① ㄱ, ㄴ      ② ㄴ, ㄷ   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     ⑤ ㄱ, ㄷ, ㄹ

29. ㉑~㉕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㉑: 많은 돌      ② ㉒: 오랜 세월
- ③ ㉓: 울리지 않다      ④ ㉔: 수레를 멈추다
- ⑤ ㉕: 서리 맞은 잎

30. (가)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?



\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